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연합과 화평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시편 133편이 그리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연합

시편 133은 형제의 연합과 함께 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노래합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동거함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참고. 창 13:5-7; 36:6-7). 인간의 탐욕과 죄는 연합과 화평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었지만,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자 이상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형제가 함께 거하는 일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두 가지 은유를 들어 묘사합니다. 먼저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지나 옷깃에 흘러내리는 모습 같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모습은 대제사장의 임직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유는 형제들이 동거하며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는 혈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소개합니다. 혈몬산은 옛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쪽에 끝 위치해 있는 산이고, 시온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혈몬산은 요단강의 수원지가 될 만큼 이스라엘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생명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까지 이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명하십니다. 결국 이 그림은 하늘의 생명과 연합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묘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이 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성취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으시고, 아론보다 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한 오직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기초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성전 안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만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2.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선교적 교회

우리는 이 시가 갖고 있는 하향의 이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가장 높은 곳, 곧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그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시기에 이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임한 은총이 아래로 흘러 아론의 온 몸을 적십니다. 생명의 원천인 이슬은 높은 산으로부터 낮은 산에까지 흘러내립니다. 하늘의 충만한 복은 위에서 시작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흘러내리는 하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향성은 이 시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낮추심은 우리를 위한 맞추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성육신의 하향성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탄하는 것에만 멈출 수 없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의 온 몸을 적시듯,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그 위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하향성을 통해 드러내는 존재로 빛어지고 있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과 성전의 생명으로 흐르듯,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된 교회 또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보냄 받습니다(요 20:21-22).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복과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맞추어 주심이 그의 몸 된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나타내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